

지역 소식통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정읍시, 차단방역 '은 힘'

정읍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지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26일 지역 내 전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정보와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 차원의 초기 방역과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모든 사방역 관리 ▲농장 주변 방역 관리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부인 출입 통제 ▲폐사체·위축돈 관리 ▲일반 출입 차량 방역 관리 ▲퇴액비 방역 관리 ▲농장관계자 산행 금지 등으로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축산차량을 전문적으로 소독하는 신규 거점소독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민정원사 배출

정읍시가 지난 24일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수료식을 열고 40명의 시민정원사를 배출했다.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교육을 통해 내 집 정원은 물론 공원과 공공기관의 식물관리 등을 통해 시민 도시농화 운동 확산에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5월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식물의 이해와 관리, 수목 전지, 정원 조성 등 전문 교육을 통해 기초 능력을 배양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교육은 지난 24일을 끝으로 매주 4시간씩 20주간 진행됐다.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정원사로서의 소질과 역량을 갖춘 시민정원사들은 공원과 도심 속 정원의 유지 관리 분야에 재능 기부로 나눔과 봉사의 기회를 갖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복지도시 도약 올인

엔젤복지통신원 제도, 소외계층 발굴 가교역할 '특독' 282세대 발굴, 생계·의료 등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

정읍시가 차별과 소외 없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지서비스가 스며들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엔젤복지통신원 제도'를 도입하며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오고 있다.

복지 통신원은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는 집배원과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등 1,300여 명으로 위기 상황을 처한 이웃 주민들을 발굴하고 제보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위기 상황이 예측되는 소외계층 282세대를 발굴했다.

시는 발굴한 282세대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의료·교육·주거·연료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발굴 가구 19세대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등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도왔다. 또, 191세대에 대해서는 수세식 화장실 설치와 도배, 장판,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72세대에 가전, 가구, 육아용품,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복지제도 안내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했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해 각종 위기 상황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접촉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통신원들의 도움으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 도시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59회 고창군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25일 오전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가운데 영예로운 '군민의장' 시상식이 열렸다.

고창군, 제59회 군민의 날 행사 성료

개정된 군민헌장 선포·'군민의장' '명예군민' 등 시상

'제59회 고창군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25일 오전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열렸다.

올해 고창군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초청 인원 최소화 및 좌석 띄어 앉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진행됐다.

30여년 만에 개정된 군민헌장이 선포됐다. 앞서 군은 1970년에 제정된 군민헌장에서 한자사용 자제 등 언어 표현을 순화하고, 한반도 천수도의 위상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희망찬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영예로운 '군민의장'은 문화체육장 김옥진(고창문화원 이사), 공익장 이강수(前고창군수), 산업근로장 오금영(금성목장 대표), 애향장 정관환(재경

고창군민회), 효행장 이춘애(부일농산물상회)씨 등이 군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명예군민'으로 조정옥(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성(가수), 나중삼(전북대 교수), 김종연(국립장성숲체원)씨가 각각 선정됐다.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은 "군민 여러분들과 59회를 맞이한 군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민의 날을 계기로 고창군민과 재외군민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결집된 응집력을 발휘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완성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 이의신청 건 심의

서외·봉덕·유유지구 소유자 의견 모두 반영

부안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서외·봉덕·유유지구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허운범 위원장(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사)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부안을 서외리 13·2번지 외 1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토지주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마쳤다.

이번 심의는 지난 7월 30일 서외지구 등 3개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 8월 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12필지로서 이의신청을 하신 토지

소유자 요구사항과 인접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재측량 한 결과,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해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축적을 완료해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부과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

신 IT기술과 접목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김종승 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지구는 부안읍과 변산면에 소재하고 있어서 소유자들의 관심이 많았고, 재조사 측량 결과가 인접 토지의 경계변경에 직결되어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함으로써 명확한 토지경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민들에게 이해시켰고, 특히 이번 이의신청토지는 12필 모두 소유자의견을 반영하게 됐다"며 아울러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 새 당호 현판 제막식

고창군이 지난 25일 한옥체험마을 내 정향당에서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 당호(堂號)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제막식은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축사,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당호 선정 선인 7인(윤회, 황운석, 신재효, 전봉준, 유응규, 오준, 오희길)의 종친과 후손, 재능기부 참여자 등이 참석해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새로 제작된 당호 현판은 고창군을 대표하는 선인들의 호로 만들어져 이들의 행적을 기리고, 정신을 잇는 의미를 더한다.

특히 많은 지역주민들의 나눔과 기부로 이뤄져 더욱 의미가 컸다. 지역

향토작가들이 당호 제작을 위해 특색 있는 서체를 제공했고, 김병욱 전 상하 면장의 3개월에 걸친 서각 재능기부로 현판이 완성됐다.

이날 고창군은 '나눔과 기부 천국'을 만들어 가는 데 참여해 준 재능기부자 8인(김덕진, 김동훈, 김요성, 이현곤, 정병갑, 허관수, 한재영, 김병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함께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을 돌아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고창군 한옥마을은 7개의 기와집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11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기와집은 고창읍성 내에 있는 객사 등을 재현해 놓았고, 대청마루와 마당 등이 달려 있어 기품있



고창군이 지난 25일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 당호(堂號) 제막식을 열었다.

는 운치 속에서 옛 선조들의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고창군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은 "한옥체험마을이 숙박만 하는 시설이 아닌 고창의 문화, 역사, 인물을 홍보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코로나19 신속 대응 공무원들 노고 격려

정읍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업무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한 '확대간담회'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강화와 주요 현안 사업, 민선 7기 핵심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함께 공유했다.

유 시장은 먼저 최근 정우면 양지마을을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유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방역이 일상화된 사회를 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개인위생은 물론, 각종 시설물에 대한 방역 수칙 이행상황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실과소

장 주도하에 연초 계획한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누수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겨울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위문 활동과 기부 운동에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 감사 준비와 보고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중반이 넘어선 만큼 핵심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유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당면 현안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경계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